

11-30 (통권 제 500호)

2011. 11. 15.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금강산 관광 13주년: 남북 경협이 경제적 가치 재발견

-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동력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7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금강산 관광 13주년: 남북 경협을 경제적 가치 재발견 -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동력	
Executive Summary	i
1. 남북 경제협력과 신성장동력	1
2. 5대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5
3. 시사점	15
■ HRI 경제 지표	18

개요	
남북 경제협력과 신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 - (특수성) 분단을 극복하는 특수한 과정은 남과 북의 경제성장 기회 제공 - (상호보완적 구조) 자연환경, 인구분포,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 (대륙과의 육로연결) 사실상의 섬나라를 대륙에 연결하여 확장성 제고 - (내수경제규모 확대) 경제활동 영역 확대, 생산 및 소비 규모 증가

5대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제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문화적 공통성,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낮은 세금과 토지사용료, 육상을 통한 물류환경 등 해외 생산기지보다 높은 경쟁력을 제공 -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완성되면 남측 협력업체 수는 6만 9,000개, 협력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연간 9조 6,000억 원으로 추정
SOC 수요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 수준과 SOC 수요는 상호 상승작용으로 선순환 구조 형성 -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TSR·TCR 연결 등 동북아 협력의 발판 - 북측에 산업단지를 6개 건설하면 남측 경제에는 86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발생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및 광물자원 수입 비용 절감 -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 절감 - 자원을 북측 산업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면 회수기간 단축 및 리스크 감소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해상, 항공 물류를 연결하여 물류 거점국가로 도약 - 해외 육상 물류가 이루어지면 수출입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 절감 - 수륙 연계형 물류를 통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하이항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운송료 수입만 연간 183억 달러 발생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 금강산 지역의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달하면 남측으로의 관광수입은 연간 750억 원에 이를 전망 - 안정과 평화의 상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고 국가 브랜드 제고 - 관광산업 발전은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사점
<p>첫째,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부창출의 원동력, 신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관점 전환 시급</p> <p>둘째, 정세가 변해도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리적 접근 필요</p> <p>셋째, 정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화해의 분위기를 남북 관계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p> <p>넷째,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중요한 기회 선점</p>

■ 남북 경제협력과 신성장동력

올해 13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추구하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측 뿐 아니라 남측에 있어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동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이념적 측면을 배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잠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경제발전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왔으나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은 남과 북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자연환경, 인구분포, 산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의 섬나라인 남한은 **대륙과의 육로연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에 의한 생산 및 소비 규모 증가, **내수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은 ① **제조업 경쟁력 강화**, ② **SOC 수요 기반 확대**, ③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④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편**, ⑤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대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남북의 생산요소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은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언어·문화적 공통성,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낮은 세금과 토지사용료, 육상을 통한 물류 환경 등 북은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완성되면 남측 협력업체 수는 6만 9,000개, 협력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연간 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② SOC 수요 기반 확대

남북 경제협력 수준과 SOC 수요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TSR·TCR 연결 등의 SOC 사업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대북 SOC 투자는 남한 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측에 6개의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 남측 경제에는 86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자원개발 협력 사업은 남측의 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광물자원 수입 비용을 절감

시키는 효과가 있다.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의 이상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원 개발을 통해 북측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투자 회수기간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편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반도의 철도와 항구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출입로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수륙 연계형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육상을 통한 해외물류 운송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수출입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하이항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료 수입만 연간 1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수도권-개성 지역, 동해안-금강산 지역을 연계한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달하면 남측으로의 관광수입은 연간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양쪽을 오가는 관광 사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관광산업의 발전은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성장전략 차원에서 남북 간 갈등 요인을 조절·통제하면서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민간과 정부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원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화해의 분위기를 남북 관계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중요한 기회를 외국 기업에게 선점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남북 경제협력과 신성장동력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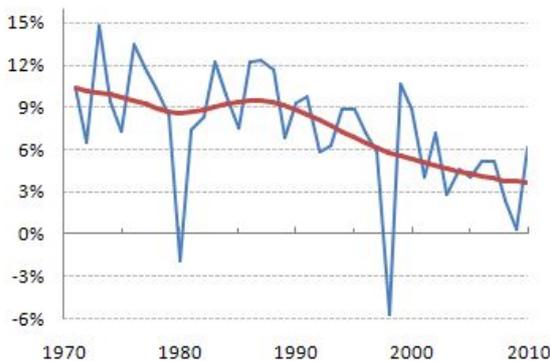
- 올해 13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 경제협력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당국 간 관계가 냉각되면서 위기를 맞음
 -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 사업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중단
 - 이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성공단만 겨우 명맥을 유지
-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추구하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에 있어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동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남북 경제협력이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과거 10년 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
 -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체험한 당사자들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정치적·이념적 측면을 배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잠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함
 - 지금까지 남북 경제협력의 가치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과소평가되거나 정치적·이념적 대결구도에 의해 축소, 왜곡된 측면이 존재
 -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남북 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성장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 경제협력

-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위기 극복,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
 -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 활동 공간 및 규모의 확장,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중요
 -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적·이념적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경제적·현실적 실리 추구를 통해 민족 전체의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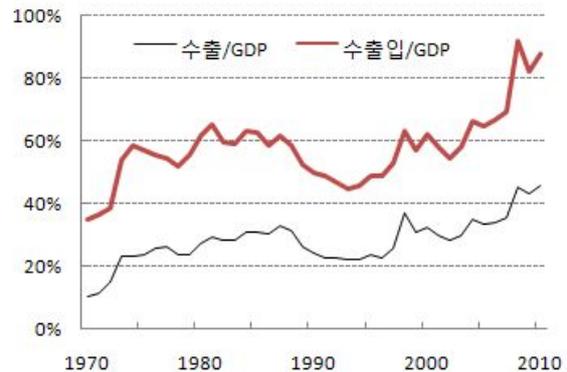
- 남북 경제협력은 국토분단 및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섬나라 경제구조,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한국은 70~80년대의 고성장기를 지나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둔화됨
 - 토지사용료, 물류비,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경제의 극복이 필요함
 - 또한 경제 활동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내수 경제 규모의 확충이 요구됨

< 한국의 실질 및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을 이용

< 한국 경제의 교역의존도 >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남북 경제협력의 경쟁력

- (특수성)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은 경제발전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 왔으나 분단을 극복하는 특수한 과정은 남과 북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 제공
 -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위험요인(Korea Risk)을 경쟁력(Korea Advantage)으로 전환하는 과정
 - 남북 경제협력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제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상호보완적 구조) 남과 북은 자연환경, 인구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 북쪽의 지하자원, 남쪽의 농업환경 등 국토자원의 분포는 단일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필연적으로 요구
 - 또한 남북은 통합적으로 파악할 때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상호보완적 인구 구조를 갖고 있음¹⁾
 - 토지, 노동, 자본 등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은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

- (대륙과의 육로연결) 사실상의 섬나라를 대륙에 연결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 우리나라가 섬나라 경제를 벗어나 육로를 통해서 외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TSR, TCR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육상 물류망을 기존의 해운, 항공 물류망과 통합하면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음

- (내수경제규모 확대)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에 의한 생산과 소비 규모 증가, 내수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향상됨

1) 현대경제연구원 (2010) '남북한 인구 구조 특성'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동력

- 남한의 국토면적은 세계 108위, 인구수는 25위 수준이지만 남북을 합하면 국토면적은 세계 84위, 인구수는 18위로 상승
- 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인구수 기준으로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 다음으로 6위에 올라서게 됨

○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동력

- 남북 경제협력은 ① 제조업 경쟁력 강화, ② SOC 수요 기반 확대, ③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④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⑤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언어·문화적 공통성,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낮은 세금과 토지사용료, 육상을 통한 물류환경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
 - **(SOC 수요 기반 확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남북 공생발전의 토대 구축
 -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세계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유무상통 방식으로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추구
 -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사실상의 섬나라를 대륙에 연결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고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동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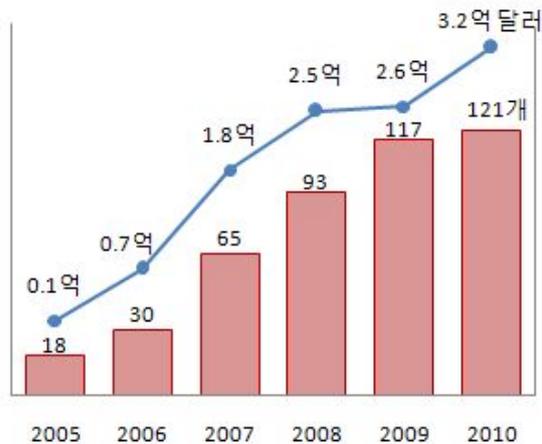
2. 5대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1) 제조업 경쟁력 강화

○ 개성공단 현황

- 제조업 생산 협력의 첫 실험장인 개성공단은 최악의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시킨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큼은 유일하게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개성공단은 착공 8년이 지나도록 전체 3단계 계획 중 1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와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8개 업체, 1,491만 달러에서 2010년 121개 업체, 3억 2,332만 달러로 성장함
 - 개성공단 관련 남북 교역액은 2010년 14억 4,000만 달러로 남북 전체 교역액의 75.5%를 차지함

<개성공단 입주기업수 및 연간 생산액>



자료: 통일부 (2011)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일부 (2011)

○ 성장 잠재력

- 불안한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임
 - 2011년 10월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63.8달러로 코트라(KOTRA)에서 조사한 중국 평균 최저임금 167달러의 38% 수준임
 - 중국은 올해 31개의 성·시·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최저임금을 평균 20% 인상하는 등 고임금 정책을 펴고 있어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크게 악화됨
 - 한편, 북측 노동자들은 언어장벽과 이직률이 없고 숙련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 및 베트남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개성공단은 세제상 혜택, 토지이용료, 물류비용 측면에서 중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²⁾
 -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에게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함
 - 2007년 3.3㎡당 14만 9,000원에 분양됐던 공장 부지는 2009년 전매제한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한의 1/10 수준에 거래되고 있음

-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완성되면 남측 협력업체 수는 6만 9,000개, 협력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연간 9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됨
 - 2010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평균 34.4개의 남측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평균 거래규모는 4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³⁾
 - 제조업 생산은 북측에서 이루어지지만 원자재·부품 조달, 사업기획, 홍보, 영업 등의 기업 활동은 남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자리 증가 효과
 - 남북 제조업 협력이 활성화되면 남측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 고용 확대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2011)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3) 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2) SOC 수요 기반 확대

○ 북한의 SOC 건설 수요

- 북은 2010~2010년까지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개발 등 4개 분야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제적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계획 수립⁴⁾
 -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방면과 ‘라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방면의 양대 축으로 개발
 - 중국, 러시아, 남한과의 연계를 고려해 신의주, 나선, 개성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 최근에는 황금평, 나선 등 접경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북한 SOC 건설 사업을 선점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편,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과 북이 합작 설립한 ‘고려링크’의 휴대전화망은 거주지역의 92.9%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1년 6월말 66만 명 돌파⁵⁾

< 북한의 주요 SOC 건설 계획 >

구분	내용	소요자금
도로	총 연장 2,490km 건설·개건	150억 달러
철도	총 연장 4,772km 건설·개건	96억 달러
발전	60kW급 화력발전소 10기 건설	50억 달러
	송전망 1,500km 건설	10억 달러
공항	평양국제공항 연인원 1,200만 명 규모로 확장	12억 달러

자료: 통일뉴스 (2011)

4) 통일뉴스 (2011) ‘대풍그룹의 2010~2020 북 경제개발 중점대상’

5) 연합뉴스 2011. 8. 11.

○ 성장 잠재력

-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수록 **SOC** 수요가 증가하고, **SOC** 확충으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면 경제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에너지·교통·통신 등 3대 SOC 인프라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제기됨
 - SOC 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는 기업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경협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TSR·TCR** 연결 등의 **SOC** 사업은 동북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의 도입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압축천연가스(CNG)로 변환하여 배로 들여오는 방식에 비해 저렴
 - 북한 역시 가스관 통과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은 남-북-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임
 - 당사국 간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체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
- 개성공단 2·3단계, 라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등 6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될 경우 남한 경제에는 **86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
 - 6개 산업단지 건설사업 규모는 43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며⁶⁾ 북한의 토목 건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남한 경제에 1조 9,63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⁷⁾
 - 북한의 SOC 건설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남한의 경기 활성화 및 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7) 한국은행 (2000)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3) 자원 자주개발을 제고

○ 남북 자원 분포의 불균형

- 남한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서 국민경제 전체가 국제 자원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주개발을 제고가 시급한 상황

- 2010년 남한의 광산물 수입액은 300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7%를 차지하며 광산물의 자급률은 7.6%(금속광은 1.4%)에 불과⁸⁾
-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안정적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 중에서 경제성이 기대되는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약 6,984조 원으로 남한 289조 원의 약 24배 규모⁹⁾

- 북한에는 약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성이 높은 희토류 및 희유금속 광물이 풍부
-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유금속' 중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코발트, 크롬 등 6종이 부존 중인 것으로 추정

< 남한의 광산물 수입액 추이 >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주요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비교 >

	잠재가치 (억 원)		북/남(배)
	북	남	
금	613,274	13,093	46.8
은	19,124	5,162	3.7
동	92,791	1,631	56.9
철	3,045,300	22,717	134.1
아연	260,680	6,892	37.8
몰리브덴	16,669	7,470	2.2
인상흑연	12,049	732	16.5
인회석	388,326	0	-
마그네사이트	26,797,320	0	-
무연탄	5,194,350	1,569,848	3.3

자료: 광물자원공사 (2011)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2010년도 광산물수급현황'

9)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북한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 실태'

○ 성장 잠재력

-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 절감
 - 마그네사이트, 규사, 규석, 흑연 등 광산물 4종을 북에서 전량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억 달러의 이익 달성 가능
 - 물류비 절감, 무관세 효과 등으로 인한 수입가격과 대북 반입가격의 차이로 광물자원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북측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남측은 투자 회수기간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
 - 산업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초기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음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 남북 자원개발 협력 사업은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의 선순환구조 형성

< 4개 광종의 대북 반입을 통한 기대이익 >

(단위: MT, 천 달러)

	반입가격(A)	수입가격(B)	차액(B-A)	2010년 수입물량	기대이익
마그네사이트	192.61	467.28	274.67	198,554	54,536
규사	13.13	39.67	26.54	1,243,908	33,010
규석	53.67	174.88	121.20	46,934	5,689
흑연	(인상)	370.00	708.62	27,287	9,240
	(토상)	110.68	212.29	52,757	5,361
계					107,835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반입가격 및 수입가격은 마그네사이트, 규석, 토상흑연의 경우 2009년, 규사, 인상흑연의 경우 2010년의 금액/물량을 계산한 가격

(4)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편

○ 동북아 국제물류 현황

- 동북아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은 물류의 중심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전 세계 무역량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2%에서 2010년 30.0%로 증가
 -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증가 및 역내 교역량 확대에 따라 동북아 국제물류는 지속적인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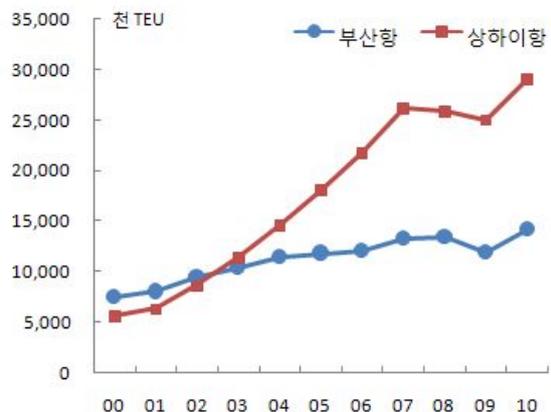
-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육상 물류가 단절된 실질적 섬나라라는 점이 제약조건으로 작용
 - 한국은 물동량 기준 세계 5위, 선박 수 기준 세계 7위의 해운 강국이지만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육상연계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이지만 2003년에 상하이항에 추월당한 이후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 세계 무역량의 지역별 비중 >



자료: WTO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부산항,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



자료: 부산항만공사, 상하이항만공사

○ 성장 잠재력

-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반도의 철도와 항구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출입로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수륙 연계형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
 - 2010년 동북 3성의 경제성장률은 13.6%로 중국 전 지역 평균치인 10.3%를 넘어서며 고성장 지속
 - 중국의 동북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를 통해야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借港出海)’는 전략 수립
 -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하이항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운송료 수입만 연간 약 183억 달러 발생¹⁰⁾

- 육상을 통한 해외 물류 운송이 가능하게 되면 기업들은 수출입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 화물 운송수단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역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는 실정임
 -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면 국제 화물 운송수단의 역할 분담 가능

-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생산 유발효과와 수입 유발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노동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¹¹⁾
 - 물류 산업의 발전은 금융, 보험, 법률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10)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상하이항 29,069,000 TEU, 부산항 14,194,000 TEU)에 2011년 3분기 컨테이너 평균운임(TEU 당 1,228달러) 적용

11) 심재희 (2009) ‘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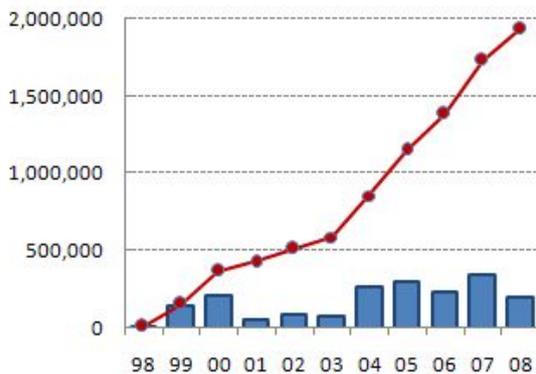
(5)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 한반도 관광 사업 현황

- 남북 교류사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한 대북 관광 사업은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발전해왔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중단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누적 관광객 수는 금강산 193만 4,662명, 개성 11만 2,033명, 평양 2,299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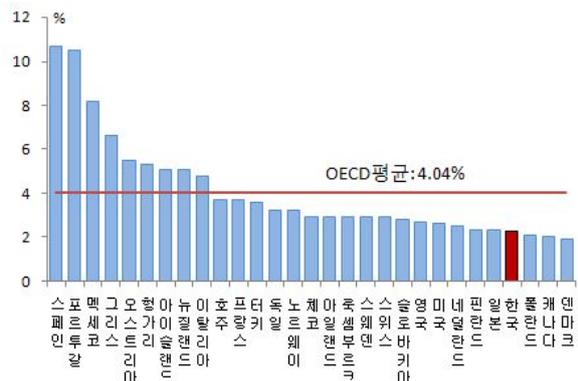
-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
 - 관광 지출로 인한 취업 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22.9명으로 산업 평균인 13.4명의 2배 수준¹²⁾
 - 그러나 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2009년 기준 2.3%로 OECD 29개국 중 26위에 머물고 있음

< 연도별 / 누적 금강산 관광객 수 >



자료: 통일부 (2011)

<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 >



자료: OECD (2010)
주: 2009년 12월 기준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성장 잠재력

- 수도권-개성 지역, 동해안-금강산 지역을 연계한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달하면 남측으로의 관광수입은 연간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04~2007년 사이의 금강산 관광객 수는 연평균 28만 6,418명을 기록
 - 이를 감안하여 서부 관광벨트와 동부 관광벨트의 관광객 수를 각각 연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남측으로의 관광 수입은 1인당 15만원으로 가정¹³⁾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양쪽을 오가는 관광 사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된 요인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긴장 상태이며 외국인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음
 - 추후 관광 사업이 평양, 백두산 등으로 확대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관광산업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관광산업의 발전 및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산업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원가 부담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필요
 - 관광산업의 핵심은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관광자원이며 주요국들은 고유의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가 정착으로 관광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통일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13) 2박3일 기준 1인당 관광비용을 3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북측에 지불하는 입장료 등 북측 수입을 차감한 15만원을 남측 수입으로 가정

3. 시사점

첫째,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 냉전 질서를 극복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
-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장기적 성장전략 차원에서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 민간과 정부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당국 간 관계가 냉각되는 경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윤희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함
- 민간 교류의 확산은 남과 북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셋째, 정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화해의 분위기를 남북 관계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진행되는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임

넷째,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중요한 기회를 외국 기업에게 선점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대북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성과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HRI**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2-2072-6237)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1/4	2/4	3/4	연간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	4.2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	3.3	3.4	
	건설투자 (%)	3.4	-1.4	-11.9	-6.8	-	-3.6	0.5	
	설비투자 (%)	-9.8	25.0	11.7	7.5	-	8.8	7.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328	282	26	65	-	160	1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404	412	73	83	68	303	240
		수출 (억 \$)	3,635	4,664	1,310	1,427	1,422	5,597	6,381
		증감률 (%)	(-13.9)	(28.3)	(29.6)	(18.7)	(22.3)	(20.0)	(14.0)
		수입 (억 \$)	3,231	4,252	1,237	1,344	1,354	5,294	6,141
증감률 (%)	(-25.8)	(31.6)	(26.0)	(27.2)	(28.1)	(24.5)	(16.0)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2.9	4.5	4.2	4.8	4.3	3.5	
실업률 (%)		3.6	3.7	4.2	3.4	-	3.5	3.6	
국고채수익률 (3년물, 평균, %)		4.0	3.7	3.8	3.7	3.6	3.8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085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